東大新聞
發行人 徐熾珏 主幹 宋赫京
編輯人 韓相範 編輯部長 尹太炳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㉖8131~9 本社直通㉖8577
每週日曜日發行

東國祝典準備 활발

——5月9日부터 3日間 開催——

學術討論회, 計劃萬全

「미스東國」選拔, 體育大會도

○…… 開校 68주년과 「부처님 오신 날」을 紀念하기위한 第15回 東國祝典이 오는 5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교내에서 거행된다。 캠퍼스를 화려하게 수놓을 이번 축전은 學術討……○
○……論大會, 미스 東國선발대회등,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총학생회는 徐熾珏총장과 각 학과 교수 및 역대 학생회장을 비롯, 재학생 전원이 참가신청방법은 本校 교무과에서 거행하고 있어서 페포트의 意義와 역할」이다。

수 1인의 추천을 받아 발표자 1명당 질의자 3명이내로 하여 學生課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여학생회에서는 「미스東國」선발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제부계획을 24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대회명칭및 선발요목, 심사규정 등에는 본교의 특색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것은 女學生部로 문의하면 된다。

축전기획위원은 다음과 같다。

▲고문=高在鎬理事長, 徐熾珏總長, 金載喆敎務處長, 敎養學部長, 여학생감▲지도위원=學生課직원▲집행위원=총학생회장단, 대의원회원

4·19追悼法會

釋林會, 4·19塔서

4·19 제14주년을 맞아 석림회에서는 지난 19日새벽 5時에 수유리 4·19塔을 참배하고 간단한 追悼法會를 가졌다。

삼귀의, 묵념, 분향 순으로 거행된 이날 法會에서 석림회장 나상은(佛敎·4)스님은 추도사를 통하여 『지난 15년間 자기 독재와 부정에 항거하여 독슬을 바쳐 國家와 民族을 구한 젊은 충혼들의 거룩한 뜻이 年輪이 더할수록 희미해져가기 보다는 더욱 새롭게 되살아나도록 국민각자가 마음에 새기자』고 말했다。

宋榮起君特賞

全國雄辯大會서

本校 송영기(정경·3)

今週一言
不當趣所愛, 亦莫有不愛, 愛之不見憂. 不愛亦見憂.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운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法句經>

成佛하시오

우리 佛敎人들 사이에는 「成佛하시오」「成佛합시다」라는 인사말이 있다。 이는 곧 「부처님이되십시오」「부처가 됩시다」라는 말이다。

부처님이 된다는 것, 이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것이다。 불원천하고 모순투성인 이 모든 불화전한 요건들이 말끔히 없어져 무한한 행복과 최상의 만족스러운 삶만이 있는 부처(佛陀)가 된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는가。 누구나 이 成佛하게되면 이 지상에는 싸움이 없고 원수도 없으며 모략과 시기도 없어져 전쟁도 없을 것이다。 그 때 속에서 구해주자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成佛하시오, 成佛하시오, 그러면 그 가사를 벗어놓고 말없이 그곳을 떠나버렸다。 그는 평생을 한번의 옷으로 만족하면서 살았으니 그의 소문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한 사람이 찾아오면 그는 항상 하는 말이 『成佛하시오, 그래도 알아라고 하였으며, 그때도 가지 않고 매달리면 지팡이로 후려치면서 내쫓고는 바보같은 놈, 내가 뭔 알아다고 나를 찾아오는고』 하였다는것이다。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나의 시체를 숲속에 그냥 내버려서짐승들의 밥이 되게하라』고 유언하였다 한다。

<金煥泰>

學界의 焦点
金裕松
<人文社會科學部·經濟學>

現代經濟分析은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論理的인 모델전개를 시도하여 왔다。 「케인즈革命」으로 35년 W·S·제번즈, C·멩거등 2차대전후 30년동안 현대경제학은 數理經濟學을 論理的 정초로하여 一般均衡理論으로 전개되었다。 뒤저 현대경제학(Modern Economics)의 부터 「限界革命」으로부터 100년을 지나독히

大學人과 宗教

社說

『대학교육의 목적은 너무 실제적이 아닌 편이 좋다。젊은이들은 대학에서 商賈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얻기 위해 공부한다。우리는 모든 생계를 세우는 방법을 배워야 하지만、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현대의 세계는 다수의 기술자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는현대가 기술자의 세계를 요망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대학의 공부를 유효하게 하는 사람들은 세계의 偉大한 책과 巨國의 文學을 읽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될 것이다。대학교육을 받는 자는 권태를 느낄 필요가 없으며 현대정황의 도피처를 찾아 헤멜 이유도 없다。살고 있는한 즐길 수 있는 모든 시대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은 1948년 5월 13일 오로스大學에서 한 「처어칠」의 연설문 일부이다。

이 인용문 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말은 여러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해 준다。

한짓 기술의 습득이나 폇개의전문에 갖게되는 必然的이기도하다。그러므로 대학인도 예외일 수는 없다。마치 종교는 개봉날짜와 같이 반박이기 위해서는 또한 어두움이 필요한 것이다。어두움이란 곧 인간의 고독을 기초로 한 전통이다。인간에 고통이 없다면 불교가 있어야할 의미가 없다。그럼으로 불교는 인간의 고뇌가 끝나는 날까지 필요한 것이오、고뇌가 없는 사람에게는 필요치 않다。

오는 4월29일(음4월8일)은 부처님이 오신 날이다。부처님이 왔裟에 오심은 오직 衆生救濟에 그 목적이 있다。그는 45년이란 긴세월을 인간고뇌의 해결을 위하여 말씀하셨고 설법하셨다。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진리이기에 부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부처님은 나를 믿으라거나 나이외에 어떠한 것도 믿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신 일은 없다。오직 나는 길을 가르칠 뿐이며、이 길은 내가 몸소 경험하시며 모든 사람들도 이 길로 가라고 가르치셨다。따라서 부처님은 인간 이상도 인간 이하도 아닌 꼭 우리와 같은 인간임을 스스로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모든 衆生은 다같이 한한 可能性(佛性)을 가지고 있다。」는 가능성을 스스로 믿으며 믿거나 못믿거나 하는 것、그것이 곧 苦惱의 根本이다。그러므로 衆生들은 이 가능성을 찾아 참다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진정한 自由와平和(解脫)를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종교란 없는 교육은 오직 편협한 악마를 만드는데 지나지 않으며、종교의 구제적인 存立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그럼에 불구하고 현대인이 종교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종교가 理論、그것에 너무 執着하고 있기 때문이다。내 자신이 집착같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그는 이미 종교이기 보다는 내 자신이 神과 같은것을 (佛性)을 발견 했더면 그는 깨달음의 經驗에 도달한 것이다。따라서 大學人이라면 그는 종교와는 석로 통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종교의 구제적인 存立의 의미가 위에서 말한 대학의 목적과 크게 相異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종교가 肉體的인 生命을 유지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말할 수 없다。따라서 絶對不可缺의 요소는 못된다。많은 종교를 찾지 않을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종교를 사랑하고 그것을지키는 데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미워하거나 박해하거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학문과 예술이 또한 人間의 本能的 생명욕지에 직접적인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것처럼 대가 기술자의 세계를 요망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대학의 공부를 유효하게 하는 사람들은 세계의 偉大한 책과 巨國의 文學을 읽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될 것이다。대학교육을 받는 자는 권태를 느낄 필요가 없으며 현대정황의 도피처를 찾아 헤멜 이유도 없다。살고 있는한 즐길 수 있는 모든 시대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은 1948년 5월 13일 오로스大學에서 한 「처어칠」의 연설문 일부이다。

東大新聞 李東秉 農學博士・農業經濟學・農業政策 <農學科・農業經濟學・農業政策 敎授>
<農業經濟學・農業政策 專攻 農學博士 <農業經濟學・農業政策 專攻 農學博士 <農業經濟學・農業政策 專攻 農學博士

英國

새로 와진 歐洲의 對韓認識

投資與件종아 對韓經協에 好意的

유럽서도 활개치는 日本商術

歷史的유물이 收支改善에 도움

韓·英經濟協 강화전망

獨逸에 本校同門 10餘名

74年經濟成長率「제로」나

「마이너스」우려

學問의 故鄕, 歐洲大學 同門 留學生 활동 活潑

市場 多邊化 위해 歐羅巴 市場 개척해야

學生論壇

自己淨化·社會에 奉仕하는날 돼야

歷史·普遍·大衆的 타당성 지녀

4·8節 佛誕日을 맞이하여

2518回 佛誕日을 맞이하여

浩德 尹
<科哲四大佛敎>

同窓會 소식

19日, 理事會 개최

예산·事業計劃 토의

崔會長 간담회 개최

獨逸에 本校同門 10餘名

74年經濟成長率「제로」나

「마이너스」우려

學問의 故鄕, 歐洲大學 同門 留學生 활동 活潑

市場 多邊化 위해 歐羅巴 市場 개척해야

公 告

東國大學校 同窓會

東大新聞社 發行所 서울特別市 中區 筆洞 2街 1番地 電話 (26) 0181~3 (內線 51)
編輯室 (內線 51) 營業部 (內線 52) 振替口座 서울 3046番
1974年 4月 23日 火曜日 第579號 (每週 火曜日 發行)

演劇學徒의 使命感 막중

『第三의 눈』

—TV 스튜디오 준공을 보고—

金湖廷
▲本校演映科同門
▲MBC-TV 탤런트 실장

동국대학교 演映科에 입학한 것은 14년전 3월이였다.

처음엔연극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演映科에 입학을 했다.

단지 고교시절 예술제를 했을때 演劇에 참가한 적은 있었다. 그것이 첫 연극경험이였다. 그때는 선생님께서 그냥 시키는데로 무대에 나서서 대사만 외우고 내려왔정도였다. 무대에서 내려와 네 목소리가 어떠했는지 물어봤더니 네가 무대에 있었느냐고 반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싼타」 할아버지役을 맡아남장을 하고 舞臺에 나갔기 때문이다. 게다가 목소리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특유의 음성이 나왔던 모양이다.

내 특유의 음성은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라전혀 알수없는 假聲이기때문이다. 이제 演映科에는 타대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담한 TV 「스튜디오」가 지난 4월12일 준공되었다. 演劇이나 TV를 전공하는 학도에겐 일대 朗報가 아닐수 없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했던 나는 演映科를 졸업하고 처음 DTV 탤런트 시험을 치던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 올랐다. 연극을 4년 전공하고 TV 탤런트로서 시험을 치던 그날은 고등학교 예술제에서 멜리던져 낙방을 한다면 演映科를 신입生처럼 面目이 처할 것이기 때문이였다.

〈만일 낙방을 한다면〉

이런한 反問을 했다.

그다음은 어디로 가야 할것인가. 나는 무엇이되며 후배들에게 어떻게대초라한 모양은아니였다.

그런데 과연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 나는 한결 냉자세는 정리되고 제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험이 이상 초조한 것은 사실이였다. 다른응시자들은 모두가 演劇과는 다른 전공을 했던사람들이다. 내가 이시험에 한단 말인가. 시험장에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이런한 생각이 되풀이 되었다. 시설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후배들에게 책임감이 더무거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처음 TV탤런트 시험을 치를 때느 껴졌던 연극학도로서의 책임감이 후배들에게 전공된 TV스튜디오를 요람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修練을 쌓게